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

최 옥 금

(성균관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설명변수를 투입하고, 패널분석(panel data model)을 활용하여 노인의 특성별로 이들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자산, 거주지역 등과 함께 과거의 직업력이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노인의 특성별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후의 상황만을 고려한 노인의 탈빈곤정책은 사후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노인 빈곤층이 될 수 있는 현재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과, 현재 보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시사한다.

주제어: 노인빈곤, 노인빈곤의 원인, 과거 직업력, 패널분석

1. 서 론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빈곤 문제 가운데 노인은 가장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인구 집단이라 할 수 있다. 2002년을 기준으로 노인의 절대빈곤율은 9.27%로 전체의 4.94%보다 높은 수준이며, 상대빈곤을 기준으로 할 때도 17.35%로 전체 9.53%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지표(최현수·류연규, 2003)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 본 연구는 2006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좋은 논평과 지적을 해주신 심사위원 및 학술대회 참가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가 다른 집단에 비해 심각하지 않은 외국의 상황¹⁾과는 대조적인데, 이는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한 독거노인의 증가, 전통적으로 노인을 부양하던 가족의 책임 감소 등 이들이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의 요구는 증가한 반면, 현실적으로는 국민연금의 미성숙,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한 노인 적용대상의 제한, 경로연금 급여수준의 비현실성 등 관련 정책들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구인회·손병돈, 2005; 홍백의, 2005)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노인 빈곤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 빈곤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단순히 노인의 빈곤 실태를 기술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대부분인데(정경희·조애저·오영희·변재관·문현상, 1998; 정경희, 1999; 최현수·류연규, 2003), 이를 통해 빈곤 노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나 이들이 빈곤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노인 빈곤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들도 최근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여성 노인의 빈곤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고(최선화, 1999; 최희경, 2005),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홍백의(2005)의 연구가 존재하지만 이 연구는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를 충분히 투입하지 않았으며, 횡단자료 분석을 통해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동태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노인 빈곤에 대해 연구한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설명변수를 투입하고, 패널분석(panel data model)을 활용함으로써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 이러한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이유는, 패널자료에 횡단분석만을 적용할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동태적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게 되고, 시계열분석만을 적용할 경우 횡단관측치 사이의 차이(individual heterogeneity)를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패널분석을 통해 횡단분석과 시계열분석의 단점을 보완하여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각 특성에 따른 노인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이해의 기반 구축 및 노인의 탈빈곤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이 연구의 주요 문제는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와 관련되며,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분석할 자료와 대상 및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이러한 방법에 근거하여 분석된 결과를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분석 결과의 종합 및 이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도록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노인은 왜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가? 이들은 노후의 상황에 의해 빈곤하게 되는 것인가,

1)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1967년에는 28.1%로 65세 미만 인구의 빈곤율 11.8%의 두 배 이상이었으나, OASDI와 같은 정책의 시행으로 1984년에는 12.4%로 감소하여 65세 미만 인구의 빈곤율 14.5%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Hurd, 1990; 홍백의, 2005 재인용).

아니면 노령기 이전의 요인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빈곤하게 되는 것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장기간 축적된 패널자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데이터가 부족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²⁾. 따라서 노인 빈곤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빈곤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기나(정경희 외, 1998; 정경희, 1999; 최현수·류연규, 2003), 사례연구를 통해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들(최선화, 1999; 최희경, 2005)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노인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은 청장년층과는 다르다. 이는 현재, 또는 최근에 발생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과거에 발생한 요인부터 퇴직 직전의 요인을 포함한 평생에 걸쳐 발생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권문일, 1997)이다. 따라서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노후의 사건 뿐 아니라 청·장년기의 요인을 설명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 선행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노인의 빈곤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최근 이루어진 홍백의(2005)의 연구를 지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5차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노동패널의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여 선행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과거 노동력 변수를 활용하고, 과거의 직업 및 종사상의 지위가 현재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 연구는 거주지역 및 자산, 건강상태 등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한 변수를 분석에서 제외함으로써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횡단분석을 시행하여 빈곤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좀 더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정교하게 분석하여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선행 연구에서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제시한 것은 크게 노인이 속한 가구의 특성,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현재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 과거 노인의 직업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먼저 노인이 속한 가구의 특성으로 가구유형, 가구의 자산 정도, 거주지역이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한다. 최현수·류연규(2003)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가구원과 같이 살거나, 노인 단독가구일 경우, 노인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 순서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구원이 함께 사는 경우에 빈곤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동거 가구원의 성격에 따라 노인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McLaughlin과 Jensen(2000)의 지적과 유사하다. 즉 노인 외에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을 경우 이들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노인 빈곤이 결정된다는 것인데, 이는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순수한 요인을

2) 외국의 경우 장기간 축적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빈곤이행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분석하기 위해서는 노인 단독가구, 노인 부부로 이루어진 가구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가족 구성원과 동거하는 노인이 아닌,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노인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가구의 특성으로 가구의 자산(McLaughlin · Jensen, 2000; Rupp · Strand · Davies, 2003)과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지적할 수 있다. McLaughlin과 Jensen(2000), Rupp 등(2003)의 연구에 의하면, 자산이 많을수록 빈곤층이 될 확률이 낮았으며, McLaughlin과 Jensen(2000)의 연구에 의하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빈곤층이 될 확률이 낮았고, 최현수 · 류연규(2003)의 연구 결과에서도 서울의 빈곤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으며, 부산, 대구와 같은 대도시보다 전남, 경북과 같은 지역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과 지방간의 노인빈곤 격차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³⁾

두 번째로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는 것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건강상태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을 지적하고 있다(McLaughlin · Jensen, 1994; McLaughlin · Jensen, 2000; 최현수 · 류연규, 2003; 홍백의, 2005).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아지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인이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Schiller(2003)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의 증가는 노동시장 참여 기회의 감소,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의료 지출 증가, 가구유형에서 노인 단독가구가 증가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노인의 교육 수준 또한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친다. McLaughlin과 Jensen(2000)의 연구에 의하면, 고졸 이하의 노인이 고졸 이상의 노인보다 빈곤층이 될 확률이 높았으며, 홍백의(2005)의 연구 또한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노인의 건강상태도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데, 건강상태는 현재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친다(Rupp et al., 2003; McGarry · Schoeni, 2005).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의 요인은 현재 노인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지의 여부이다. McLaughlin과 Jensen(2000)의 연구에 의하면,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노동시간이 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최현수 · 류연규(2003)의 연구에서도 노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면 빈곤율이 2배 정도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노인의 과거 직업력에 관련된 변수가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한다(McLaughlin · Jensen, 1994; McLaughlin · Jensen, 2000, 홍백의, 2005). 특히, 홍백의(2005)의 연구에서는 이를 투입하여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 직종 및 정규직 여부가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제시했다.⁴⁾ 특히, 이 연구에서는 과거 직업력의 직종 및 정규직 여부에 대한

3) 물론 이러한 논의는 논리적으로 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다. 즉, 중소도시에 살기 때문에 빈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빈곤한 경우 낮은 가구소득으로 인해 대도시에 거주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면서, 거주지역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4) 이 연구에서는 직업력에 투입한 변수를 노인의 퇴직 전 최종직업으로 선택하였는데, 이보다는 개인이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의 특성을 투입하여 분석하는 것이 노인의 빈곤이행에 직업력이 미치는 영향을 더욱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직업력에 대한 자료는 회고의 특성을 갖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변수를 노인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활용했는데, 현재 여성 노인의 경우 대부분 과거에 직업이 없기 때문에 가구주의 직업력이 현재 빈곤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여기서는 이를 개개인에 대한 것이 아닌, 가구주의 과거 직업력 중 가장 오랫동안 일자리의 직종, 근로년수 등을 투입하여 분석하도록 한다.⁵⁾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노인단독가구와 노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자산정도, 거주지역, 성별, 연령, 교육 수준, 혼인상태 및 건강상태, 과거 노동력과 관련된 변수로 가장 오랫동안 일한 일자리의 직종, 근로기간, 현재 노동시장 참여 여부 등을 투입하여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도록 한다.⁶⁾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자료를 활용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 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이다(1998, 한국노동연구원). 따라서 가구와 개인의 장기간에 걸친 변화와 상태 간 이동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에서 2004년까지의 종단적인 연구를 시행할 것이므로 1차 년도에 55세 이상인 노인을 분석 대상으로 상정한다. 5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한 이유는, 현재 고령자 고용촉진법과 통계청조사에서 노인과 비노인의 기준 연령을 55세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장인협·최성재, 1992; 김순미, 1998; 정순희·김현정, 2001).⁷⁾ 특히 노인으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그 대상을 제한하여 분석할 것인데, 노인 외에 다른 가족구성원이 있을 경우 이들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그 가구에 속한 노인의 빈곤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
- 5) 홍백의(2005)의 연구에서는 직업의 수, 근로기간 등을 과거 노동력과 관련된 변수로 투입하였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으며, McLaughlin과 Jensen(2000)의 연구에서도 근로기간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는데, 이는 과거 노동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직종, 취업형태 등이 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변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6) 한편,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빈곤지위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쓰인 총소득에 이러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에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노인빈곤에 관해 실증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들(홍백의, 2005, McLaughlin·Jensen, 2000)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투입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 7) 노인의 연령은 최현수·류연규(2003)의 경우 65세로, 홍백의(2005)의 경우 60세로, 연구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빈곤 여부는 4차년도 가구자료(2000년 소득자료)에 수록된 가구의 총 소득을 균등화지수로 조정한 균등화소득⁸⁾을 활용하여 중위소득을 구하고, 이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을 빈곤선으로 정의하였다. 이런 방법을 활용하는 이유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할 경우 소득의 과소보고 문제가 있고, 따라서 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보다 2000년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한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추정하여 활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홍경준(2004), 구인회(2005)의 지적을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년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액⁹⁾을 빈곤선으로 이용하고, 2000년 이외의 연도에 대해서는 각 년도 명목소득을 2000년 물가기준 소득으로 전환한 후 2000년의 빈곤선을 그대로 적용하여 가구의 빈곤여부를 판별하였다. 한편 개인의 빈곤여부는 해당 가구의 빈곤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구성에서 가구자료 중 소득에 대한 문항이 지난 해 소득에 대한 질문인 것을 고려하여 1차 개인자료 및 가구자료에서 분석에 활용할 변수를 취한 후, 소득자료는 2차 가구자료에서 가져오는 방식을 채택했다.¹⁰⁾ 따라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총 연구 주기는 6개 년도가 된다.¹¹⁾ 구체적인 자료구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노동패널 1차 자료에서 연구대상을 추출한 다음 이를 99, 00, 01, 02, 03년 자료에서 개인고유번호를 기준으로 취합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1차 자료에서 노인으로 이루어진 가구에 속한 55세 이상의 개인을 추출했으며, 소득자료는 2차 자료와 취합하였다. 이를 2004년의 자료까지 추적하여 취합하고, 이를 다시 직업력 자료와 취합하여 과거의 직업 변수들을 데이터셋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균형패널 자료(Balanced panel data)를 활용할 것이므로 00년에 연구대상에서 누락되었다가 01년에 다시 응답한 사례와 같은 경우는 분석에 활용하지 않는다. 곧, 98년에는 응답하였으나 00년에 누락되고, 다시 01년에 응답한 자료의 경우 99년의 자료까지만 분석에 활용된다.¹²⁾

2) 변수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빈곤지위인데, 빈곤하면 1, 빈곤하지 않으면 0의 값을 부여하였다.

연구에서 활용된 독립변수들은 연구 대상의 가구 특성 요인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현재 일자리 관련 요인, 과거 직업력 요인의 하위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연구 대상의 가구 특성 요인으로는 자산과 거주지역이 있다. 자산변수의 경우 연구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분산(Variance)이 매우

8) 균등화소득=가처분소득/가구규모E. 여기에서 균등화 탄력성 E는 0부터 1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값이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가 적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균등화 탄력성을 0.5로 두어 가구규모를 조정하였다.

9) 2000년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액은 32만원이었다.

10) 이는 다음과 같다. 1차 개인·가구자료+2차 가구자료(소득), 2차 개인·가구자료+3차 가구자료(소득), 3차 개인·가구자료+4차 가구자료(소득), 4차 개인·가구자료+5차 가구자료(소득), 5차 개인·가구자료+6차 가구자료, 6차 개인·가구자료+7차 가구자료.

11) 본 연구의 대상은 노인이므로, 신규자료는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2) 불균형패널 자료(Unbalanced panel data)를 활용할 경우 이러한 자료들도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분석의 복잡성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균형패널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켰기 때문에 연속 변수로 활용하지 못하고 범주를 나누어서 분석하였는데, 1천만 원 미만에는 1, 1천만 원에서 2천5백만 원 미만은 2, 2천6백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은 3, 5천만 원에서 7천5백만 원 미만은 4, 7천5백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은 5, 1억 원에서 2억 원 미만은 6, 2억 원에서 3억 원 미만은 7, 3억 원에서 4억 원 미만은 8, 4억 원에서 5억 원 미만은 9, 5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은 10, 10억 원 이상은 11의 값을 부여하고 이를 연속 변수로 간주하여 분석했다. 또한 거주 지역의 경우 분석 자료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그 밖에 도 지역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울과 광역시를 대도시로 간주하여 1을 부여하였으며, 그 외 도 지역은 0을 부여하여 분석했다.

한편 현재 일자리 관련 요인은 현재 일자리가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을 부여하여 분석에 투입했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은 성별, 연령, 학력, 혼인상태, 건강상태, 현재 일자리의 여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남성에게는 1을, 여성에게는 0의 값을 부여했고,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0,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했다. 또한 건강변수는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인종다'의 경우 1을,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 2, '건강한 편이다'와 '아주 건강하다'의 경우 3을 부여하여 자산변수와 같이 연속변수로 간주하여 분석했다. 이 밖에 연령변수(만 나이), 학력변수(년)의 경우는 연속변수 형태로 분석에 투입했다.

다음으로 과거 직업력 요인에 관한 변수 측정은 다음과 같다. 과거 직업력을 분석에 투입한 홍백의(2005)의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개인의 직종 및 근로 기간을 분석에 투입했는데, 여성 노인의 경우 대부분 비경제활동인구로 가사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의 직종 및 근로기간을 분석에 투입할 경우 다수의 결측치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가구주(남편)의 직업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개인의 직업력을 분석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가구주의 직종을 분석에 투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즉, 가구 안에 남성이 있을 경우 남성의 직종을, 여성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여성의 직종을 가구주의 직종으로 간주하여 분석에 투입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홍백의(2005)의 연구에서는 과거 일자리를 가장 최근의 일자리로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일자리가 아닌 개인의 직업력에서 근로년수가 가장 긴 일자리의 직종을 활용하였다. 이는 개인이 가장 오랫동안 일한 일자리가 노인의 현재 경제 상황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농어업의 경우 0, 남성가주주의 경우 분류할 수 없는 경우¹³⁾와 여성가주주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아 가사로 분류된 경우에는 1의 값을, 사무직에는 2, 판매·서비스직의 경우 3, 전문관리직은 4, 기능직은 5, 단순노무직에는 6의 값을 부여했으며, 이를 더미변수화하여 분석에서 활용하였다. 또한 가구주가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의 근로년수 및 부인이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의 근로년수를 분석에 투입했다.

변수 측정 방법에 대한 것은 다음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13) 이는 직업력 자료에서 근로기간은 표시되어 있으나, 직종의 경우 '분류불가'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이다.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

항목	변수유형	변수정리
가구 특성 요인	자산	10억원 이상-11
		5-10억원 미만-10
		4-5억원 미만-9
		3-4억원 미만-8
		2-3억원 미만-7
		1-2억원 미만-6
		7천5백만-1억원 미만-5
		5천-7천5백만원 미만-4
		2천5백-5천만원 미만-3
		1천-2천5백 미만-2
1천만원 미만-1		
인구 사회학적 요인	거주지역(중소도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1, 중소도시=0
	성별(여성)	남성=1, 여성=0
	연령	만나이로 측정
	학력	교육년수로 측정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0
	건강상태	건강한 편이다, 아주 건강하다-3 보통이다-2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건강이 아주 좋지 않다-1
일자리 관련 변수	일자리	현재 일자리 있음=1, 현재 일자리 없음=0
과거 직업력	직업(농어업)	
	가구주의 직업 1	분류불가, 여성가구주일 경우 가사
	가구주의 직업 2	사무직
	가구주의 직업 3	판매·서비스직
	가구주의 직업 4	전문관리직
	가구주의 직업 5	기능직
	가구주의 직업 6	단순노무직
	가구주의 근로기간	가구주가 가장 오랫동안 일한 직업의 근로년수
부인의 근로기간	부인이 가장 오랫동안 일한 직업의 근로년수	
종속변수	빈곤여부	빈곤 1, 비빈곤 0

3) 분석방법¹⁴⁾

본 연구에서는 패널분석을 활용하여 노인 빈곤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패널분석이 갖는 다음과 같은 장점 때문인데, 우선 횡단분석이나 시계열분석에 비해 관측치(observation)의 수가 크기 때문에 자유도(degree of Freedom) 문제가 줄어들어 추정값이 더 높아지며, 횡단관측치 간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고려하므로 시계열자료나 횡단자료에 비해 보다 복잡한 동태적 가설검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즉, 시계열자료의 경우 시간이라는 공간에서 횡단관측치들의 개별적 특성을

14) 분석도구로는 SAS v.8.1과 STATA v.8을 활용하였다.

무시하고 이를 통합하거나 평균한 것임에 반해서 패널분석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횡단관측치 간의 변화 추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패널분석을 활용함으로써 관측할 수 없는 특성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서진교, 2001).

한편, 패널 모델에는 고정효과 모델(Fixed-effect model)과 임의효과 모델(Random-effect model) 두 가지가 있다. 고정효과 모델은 관측할 수 없는(unobservable) 특성을 고정된 상수로 가정하는 모델이며, 임의효과 모델은 관측할 수 없는(unobservable) 특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하고 각각의 사례를 다른 관찰값으로 취급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특히, 고정효과 모델의 경우 종속변수와 설명변수들은 횡단면치 시계열상의 산술평균을 구해 각각의 값에서 뺀 형태의 새로운 변수로 전환되어 분석되므로, 횡단관측치의 수가 많으면 자유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 투입되는 과거 직업력 변수의 경우 회고자료이므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료가 아닌 일정한 값을 갖는 변수라는 점과, 본 연구의 분석 년도가 6년으로 그리 길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임의효과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패널분석의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y_{it} = \alpha + x_{it}\beta + u_{it} \quad (1)$$

$$u_{it} = \mu_i + \varepsilon_{it}, \quad \varepsilon_{it} \sim iid(0, \sigma_\varepsilon^2) \quad (2)$$

여기서 i 는 횡단관측치를 의미하며, t 는 시간변수이다. 오차항 u_{it} 는 관측 불가능한 횡단효과(μ_i)와 나머지 오차(ε_{it})로 구분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정효과 모델에서는 횡단효과(μ_i)를 고정된 상수로 취급하는 반면, 임의효과 모델에서는 이를 확률변수로 취급한다. 또한 x 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구특성 요인, 직업력 요인 등 본 분석에서 투입하는 설명변수를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빈곤 여부이므로 본 연구의 모델은 로짓(logit)모형을 따르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최대우도 추정(maximum-likelihood)을 활용한다.

$$y_{it} = x_{it}\beta + u_{it} \quad (3)$$

$$y_{it} = 1 \text{ if } y_{it} > 0, \quad y_{it} = 0 \text{ if } y_{it} \leq 0 \quad (4)$$

4. 연구결과

1) 연구대상의 기술적 분석

연구대상을 추출하기 위해 98년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55세 이상이면서 가구원이 모두 55세 이상으로 이루어진 노인 가구를 추출하고, 분석에서 활용될 변수들이 결측값인 경우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결과 1차년도에는 448명, 2차년도에는 333명, 3차년도에는 275명, 4차년도에는 251명, 5차년도에는 232명, 6차년도에는 221명이 연구대상으로 선택되었다. 표본유지율은 49%로, 한국노동패널자료의 6차 표본유지율인 77%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가구의 경우 사망 등으로 인해 누락된 사례가 다른 인구 집단보다 많은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7차년도 연구대상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연구대상	448	333	275	251	232	221
빈곤선	320,000원					

이제부터는 연구 대상의 기본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1999년 자료를 활용¹⁵⁾하여 연구 대상 전체와 빈곤층으로 구분하여 연구 대상의 기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가구 특성 요인부터 살펴보면, 거주 지역은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41.4%,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58.6%로 나타난 반면, 빈곤층의 경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중이 51.7%,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48.3%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한편 평균 자산은 전체가 1.40, 빈곤층은 1.17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자산 범주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본 결과, 자산 가치가 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는 62.9%인 반면 빈곤층의 경우 94.3%로 나타나 빈곤층의 경우 전체에 비해 자산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여성이 61.3%로 38.7%인 남성보다 많았는데, 이는 노인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빈곤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이 65.3%, 남성이 34.7%로 전체에 비해 여성의 비중이 좀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 연구 대상의 연령은 평균 68세였으며, 빈곤층의 평균연령은 69세로 전체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체의 평균 교육년수는 4.16년인 반면, 빈곤층의 평균 교육년수는 2.66년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 빈곤층의 경우 노인 전체에 비해 학력수준이

15) 자산변수와 건강상태 변수는 2차 자료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999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대상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낮은 사람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노동패널 2차 기초분석보고서에서 전체 인구 집단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고졸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연구 대상인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 노인을 분석한 홍백의(2005)의 연구에서도 무학 및 초졸인 사람이 전체의 63.2%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한편 혼인 상태의 경우 전체 연구 대상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4.6%,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35.4%였고, 빈곤층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54.4%,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45.5%로 배우자가 없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빈곤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전체 연구 대상의 평균 건강상태는 1.90으로 대부분 보통인데 반해, 빈곤층의 경우 1.73으로 건강상태가 약간 낮았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28.1%인 반면, 빈곤층의 경우에는 47.7%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 빈곤층이 전체 노인에 비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의 과거 직업력 요인을 살펴보자. 먼저 가구주가 가장 오랫동안 일했던 직업을 살펴보면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농어업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남성가구주의 경우 현재 직종으로 분류할 수 없거나, 여성가구주의 경우 가사라고 경우가 전체의 22.2%로 가장 많았으며, 기능직이었던 경우가 16.2%, 단순 노무직과 판매 서비스라고 응답한 경우는 14.7% 정도를 차지했다. 또한 전문관리직은 7.2%, 사무직은 3.3%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 농어업 비중이 31.3%, 분류할 수 없는 경우와 가사라고 응답한 경우가 25.6%로 전체에 비해 높았고, 단순노무직이 14.2%로 전체와 같은 비중이었으며, 판매서비스직은 12.5%, 기능직은 11.9%로 전체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사무직과 전문관리직의 경우 2.3%로 전체에 비해 비중이 크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여겨지는 사무직과 전문관리직의 비중이 낮은 것을 볼 때, 빈곤층의 경우 가구주가 가장 오랫동안 일한 일자리의 질이 전체 노인에 비해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구주의 근로기간은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평균 18.57년, 부인의 경우에는 8.26년인 반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가구주의 경우 16.14년으로 낮아지고, 부인의 경우에는 13.69로 높아졌는데, 이는 가구의 경제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부인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을 보충하는 것과 관련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빈곤여부를 살펴보자. 이는 각 년도별로 분석하여 그 추이를 살펴 보았는데, 분석결과 1차년도에는 53%, 2차년도에는 52%, 3차년도에는 54%, 4차년도에는 53%, 5차년도에는 53%, 6차년도에는 50%로 나타났으며, 6개년도의 평균 빈곤율은 52.92%였다. 각 연도별 빈곤율에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첫째, 본 연구 대상이 1차년도부터 동일한 대상을 분석에 포함했다는 점, 둘째, 분석 대상이 노인이기 때문에 빈곤의 진입과 탈퇴를 반복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장기 빈곤자가 많다(구인회, 2005)는 것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편, 평균 빈곤율은 52.92%로, 이는 기존 노인 빈곤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빈곤율이 40% 정도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인데, 이러한 차이는 기존 연구들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들을 모두 분석에 포함시켰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로 이루어진 가구만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¹⁶⁾

<표 3> 연구 대상의 특성

변수		전체		빈곤층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속변수							
연령		67.87	6.85	69.61	6.76		
교육년수		4.16	4.43	2.66	3.36		
자산		1.40	1.16	1.17	0.79		
건강상태		1.90	0.81	1.73	0.79		
가구주 근로기간		18.57	16.14	16.07	15.60		
부인 근로기간		8.26	13.69	8.81	13.85		
분류변수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성별	여	61.3	204	65.3	115		
	남	38.7	129	34.7	61		
혼인상태	배우자 없음	35.4	118	45.5	80		
	배우자 있음	64.6	215	54.5	96		
거주지역	중소도시	41.4	138	51.7	91		
	대도시	58.6	195	48.3	85		
일자리 여부	일자리 없음	99.1	330	100	176		
	일자리 있음	0.9	3	0	0		
가구주의 직업	농어업	22.2	74	31.3	55		
	분류불가 (여성가구주일 경우 가사)	22.2	74	25.6	45		
	사무직	3.3	11	2.3	4		
	판매·서비스직	14.7	49	12.5	22		
	전문관리직	7.2	24	2.3	4		
	기능직	16.2	54	11.9	21		
	단순노무직	14.2	47	14.2	25		
전체 사례수		333		176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빈곤율		53.1	52.85	54.54	53.78	53.01	50.25
평균빈곤율		52.92					

* 주: 한국노동패널 2차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임.

마지막으로 현재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채 1%도 되지 않았으며, 빈곤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분석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분석하도록 한다.¹⁷⁾ 그렇다면 일자리가 없는 노인으로부터 이루어진 가구 가운데 빈곤에 떨어지지 않은 가구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들의 소득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빈곤한 노인과 빈곤하지 않은 노인의 소득 구성 사이에 차이는 무

16) 기존연구들과 구별되진 않지만 빈곤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로 또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노인들의 경제상황은 소득보다는 자산에 근거하여 변화할 가능성이 높는데, 본 연구에서는 빈곤지위를 판단함에 있어 자산은 포함시키지 않고, 소득만을 고려한 것 또한 지적할 수 있다.

17) 1999년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5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2.3% 정도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적음을 생각할 때, 이는 노인으로부터 이루어진 가구에서는 전체 55세 이상의 노인에게 비해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위하여 연구 대상의 소득 구성을 각 대상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 4>에 정리한 것은 각 대상별 소득 구성의 평균을 구한 것이다.

<표 4> 대상별 소득 구성

(단위: 만원)

소득원	전체	비빈곤층	빈곤층
근로소득	27.68	52.59	5.46
금융소득	44.02	83.01	9.25
부동산소득	59.97	108.91	16.30
사회보험금액	87.91	178.50	7.15
이전소득			
정부보조금	22.05	7.91	34.67
사회단체보조	0.82	0	1.56
친척친지보조	176.07	240.06	118.99
기타	0.18	0.21	0.14
소계	199.14	248.19	155.38
기타소득			
보험금	2.55	5.41	0
퇴직금	115.91	245.85	0
소계	118.46	251.27	0

* 주: 한국노동패널 2차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임.

<표 4>를 살펴보면 연구 대상 전체의 소득 구성 및 비빈곤층과 빈곤층의 소득구성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비빈곤층과 빈곤층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근로소득의 차이를 보면, 빈곤층은 5.36만 원인데 비해 비빈곤층은 52.59만 원으로 빈곤층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¹⁸⁾ 또한 금융 소득, 부동산 소득, 사회보험을 통한 급여에 있어서도 비빈곤층은 83.01만 원, 108.91만 원, 178.50만 원으로 빈곤층의 9.25만 원, 16.30만 원, 7.15만 원에 비해 매우 높다. 가장 인상적인 항목으로는 이전소득과 기타소득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각 항목을 자세히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전소득의 소계는 비빈곤층이 248.19만 원, 빈곤층의 경우 155.38만 원으로 비빈곤층이 더 많은 하지만 빈곤층의 경우 이전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전소득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소득의 항목을 살펴보면 두 집단 사이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비빈곤층의 경우 정부보조금은 7.91만 원이고 친척친지보조가 240.01만 원을 차지하는 반면 빈곤층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34.67만 원으로 비빈곤층에 비해 매우 높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전소득을 구성하고 있다. 또한 친척친지보조금은 118.99만 원으로 비빈곤층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노인으로만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친척 보조와 같은 사적 이전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소득이 낮더라도 빈곤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둘째, 빈곤 노인의

18) 본 연구의 분석대상 중 일자리를 가진 경우가 전체의 0.9%밖에 비해 근로소득이 높게 나온 이유는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일자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은 '지난 일주일 간'이며, 소득의 경우 '지난 한 해의 평균'을 묻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에 대한 답의 시점이 다를 수 있다.

경우 정부보조금에 의존하여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의미 있는 결과는 기타소득과 관련된 것인데, 비빈곤층의 경우 기타 소득의 소계가 251.27만 원으로 매우 높으며, 이를 대부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은 바로 퇴직금인 반면 빈곤층은 기타소득이 0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노인의 과거 일자리가 노인의 현재 경제 상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곧, 빈곤층의 경우 노인이 되기 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거나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일자리에 종사했거나, 한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제부터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이를 분석할 때 노인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할 것인데, 이는 노인은 동질적인 집단이라기보다는 이질적으로 구성된 집단이라는 것에서 기인한다(Schulz, 2001). 앞선 분석에서 같은 노인이라도 소득 구성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노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경우 왜곡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들을 분류할 것인가? 여러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성별과 배우자 유무를 그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그 이유는, 노인의 특성 중 성별과 배우자 유무가 빈곤과 관련하여 이들을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성별의 경우,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전체 노인빈곤율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석재은·김용하·김태완, 2003) 이들의 빈곤은 남성의 빈곤과 달리 생애 전체에 걸쳐 여성으로의 불평등과 취약성을 경험한 것과 밀접히 관련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최희경, 2005). 또한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서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빈곤율이 높을뿐더러, 그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이들을 따로 분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을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로 제한했다는 점에서 배우자의 유무는 혼자 사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노인의 특성에 따른 빈곤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체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본 뒤, 여성과 남성을 구분한 모형과 배우자의 유무에 따른 모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5>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체 모형¹⁹⁾

설명변수	전 체	
	계수	S.E
성별	.1600	.4632
연령	.0859**	.0246
학력	-.2075**	.0502
혼인상태(배우자없음)		
배우자있음	-.7913*	.3700
자산	-.2826*	.1255
건강상태	-.2016	.1474
거주지역(중소도시)		
대도시	-.9124**	.3351
가구주 근로기간	-.0133	.0166
부인의 근로기간	-.0009	.0200
가구주의 직업(농어업)		
분류불가(여성가구주일 경우 가사)	-.7745	.5764
사무직	-1.9955*	.9598
판매·서비스직	-1.5579**	.5569
전문관리직	-.8890	.8833
기능직	-.9627+	.5379
단순노무직	-.6209	.5645
상수	-2.1147	1.7991
사례수	1080 ²⁰⁾	
Number of groups	333	
Wald Chi ²	93.71**	
Log likelihood	-536.83	
sigma_u	2.1021	
rho	.5732	
Likelihood ratio test for rho=0	chibar2(01)=118.09	

* 주: +=P<.1, *=P<.05, **=P<.01

우선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운데 연령, 학력, 혼인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가구 특성 가운데에서는 자산과 거주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를 정리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빈곤에 빠

19) 분석결과, 이후에 노인의 특성을 분류하여 분석하는 기준인 성별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성별과 혼인상태 변수 사이의 관련성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를 좀더 설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337로 그리 높지 않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20)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인 자산변수는 2차년도 패널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건강상태 변수의 경우 1차년도 패널과 5차년도 패널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STATA를 활용한 분석 시 1차 패널자료와 5차 패널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되었다. 따라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분석을 활용한 분석에서는 2차, 3차, 4차, 6차년도 패널자료만이 활용되었음을 밝힌다.

질 확률이 낮으며, 혼인상태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을 때보다 배우자가 있을 때 빈곤에 빠질 확률이 낮았다. 또한 자신이 많을수록 빈곤에 빠질 확률이 낮고, 중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빈곤에 빠질 확률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빈곤에 빠질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은 빈곤층의 경우 낮은 가구소득으로 인해 대도시에 거주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과거 일자리의 영향을 통제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빈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홍백의(2005)의 연구와는 대조적인데, 이는 개인의 이질성을 고려한 패널분석을 통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횡단분석을 통한 기존의 결과는 노인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거 직업력의 특성을 과대평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실증 연구에서 투입되지 않은 자산과 거주 지역 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요인들이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거 직업력과 관련된 변수들의 분석 결과는 어떠한가? 우선 가구주의 근로년수와 부인의 근로년수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들의 결과(홍백의, 2005; McLaughlin · Jensen, 2000)와 유사하다. 한편, 직종과 관련해서는 가구주의 직업이 사무직이었던 경우, 판매·서비스직이었던 경우, 기능직이었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들 모두는 기준 변수인 농업에 종사했던 경우에 비해 빈곤에 빠질 확률이 낮음을 보여주었다. 홍백의(200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직업력은 현재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다.

<표 6>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성에 따른 분류

설명변수	모형 1 (남성)		모형 2 (여성)		모형3 (배우자 있음)		모형4 (배우자 없음)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계수	S.E
성별	-	-	-	-	.2302	.5501	-.3852	1.3911
연령	.0563	.0420	.0876**	.0314	.1047**	.0368	.0577 ⁺	.0322
학력	-.2592**	.0854	-.1692*	.0679	-.2678**	.0691	-.1129	.0740
혼인상태(배우자없음) 배우자 있음	.0951	.7520	-.8998 ⁺	.4668	-	-	-	-
자산	-.2632	.1783	-.2776	.1739	-.1070	.7920	-1.3684**	.5222
건강상태	-.0256	.2539	-.2712	.1886	-.0431	.1954	-.4046 ⁺	.2257
거주지역(중소도시) 대도시	-1.0556 ⁺	.5557	-.7883 ⁺	.4207	-1.0841*	.4469	-.4516	.4848
가구주 근로기간	-.0100	.0203	-.0232	.0243	-.0269	.0190	-.0015	.0553
부인의 근로기간	-.0422	.0345	.0142	.0274	-.0066	.0237	-.0080	.0586
가구주의 직업(농어업) 분류불가(여성가구주 일 경우 가사)	-1.1181	.9868	-.6464	.7477	-1.4502**	.7920	-.0071	.8399

사무직	-1.6146	1.5756	-2.8206	1.8025	-2.0176 ⁺	1.0729	-2.8920	2.2365
판매·서비스직	-2.6490*	1.0365	-1.2980 ⁺	.6753	-2.9220**	.8452	-.7832	.7018
전문관리직	-1.2044	1.2680	-.5148	1.2879	-1.3666	1.1754	-.7259	1.3504
기능직	-.7311	.7646	-1.6322*	.8208	-.5725	.6829	-2.6876**	.9121
단순노무직	-.6234	.9379	-.0232	.0243	-.6294	.7949	-.8499	.7474
상수	-.4681	3.2928	-2.2928	2.3079	-3.9223	2.6218	.6609	2.2983
사례수	406		674		684		396	
Number of groups	129		204		218		122	
Wald Chi ²	34.27**		56.68**		60.06**		34.50**	
Log likelihood	-198.85		-332.85		-332.46		-188.12	
sigma_u	2.0730		2.1027		2.1535		1.6302	
rho	.5664		.5733		.5850		.4468	
Likelihood ratio test for rho=0	chibar2(01)=34.33		chibar2(01)=73.72		chibar2(01)=68.05		chibar2(01)=24.43	

* 주: +=P<.1, *=P<.05, **=P<.01

다음으로 여성과 남성을 비교한 모형을 살펴보도록 한다. 두 모형 간 가장 큰 차이는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연령과 혼인상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 이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여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빈곤에 빠질 확률이 낮아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빈곤에 빠질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들의 경우 노후의 경제 상황을 배우자에 의존한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분석한 모형 모두에서 과거 직업력 변수가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남성의 경우 가구주가 판매·서비스직인 경우 농업에 비해 빈곤에 빠질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가구주가 판매·서비스직인 경우, 기능직이었던 경우 빈곤에 빠질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 모형에서 유의미한 직업력 변수가 더 많이 나타난 것은 가구주의 직업력이 남성의 빈곤보다 여성의 빈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기인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한 모형의 결과를 살펴보자. 우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령과 학력, 거주 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중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빈곤에 빠질 확률이 낮음을 보여준다. 또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모형에서도 가구주의 과거 직종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현재 직업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와 사무직인 경우, 판매·서비스직인 경우가 기준 변수인 농업에 비해 빈곤에 빠질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달리 자산과 건강상태 변수가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자산이 많을수록 빈곤에 빠질 확률이 낮으며, 건강이 좋을수록 빈곤에 빠질 확률이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노인의 빈곤은 개인의 건강상태, 가구의 자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가구주의 과거 직종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가구주의 직종이 기능직이었던 경우 농어업에 비해 빈곤에 빠질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과거 가구주의 직업력과 관련된 요인 가운데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변수가 적다는 것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 가구주의 직업력보다는 현재 축적한 자산이나 자신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라 하겠다.

5. 결 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 문제는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그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여기에서는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노인으로만 이루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그들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패널분석을 활용하고,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설명 변수를 투입하여 노인의 특성별로 각 영향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으로만 이루어진 가구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의 6년간 평균 빈곤율은 52.92%로, 기존에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사는 노인을 포함하여 분석한 연구의 노인 빈곤율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과 같이 사는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최현수·류연규, 2003), 다른 가족 구성원과 같이 사는 노인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이들의 경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순수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노인으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그 대상을 제한해야 함을 제시한다.

둘째,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 학력, 혼인 상태, 자산, 거주 지역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가구특성과 함께 과거의 직업력이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특히 ‘좋은 일자리’에 종사한 경우 노인의 빈곤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이러한 일자리의 경우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을 뿐 아니라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노후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에서도 기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빈곤 문제를 접근할 때 단순히 노후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되기 이전의 상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셋째,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노인의 특성별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혼인 상태와 연령이 중요한 변수였으며, 배우자의 유무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산과 건강상태가 중요한 변수로 도출되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여성 노인의 빈곤이 혼인 상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이들의 빈곤이 배우자(남성)의 특성에 의존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가구의 소득원이었던 배우자와의 사별은 여성 노인의 경제적 지위가 하락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최희경, 2005)이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선 과거의 직업력이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노후 상황만을 고려한 노인의 탈빈곤정책은 사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이 노인이 되기 이전, 즉 청·장년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자산을 축적하고, 노후의 주요 소득원 중 하나인 사회보험 및 퇴직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이는 노인 가운데 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소득원을 구분하면 자산 및 사회보험과 퇴직금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첫 번째는 미래에 노인 빈곤층이 될 위험이 높은 현재 청·장년층과 관련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빈곤의 질적 변화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다. 이들은 대부분 저숙련 노동자로, 노동시간 부족과 임금률 감소로 인한 낮은 임금, 실업과 취업의 반복 경험 등 노동시장에서 매우 불안정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등장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임시·일용직과 같은 불안정 취업층의 증가와 같은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최옥금, 2005).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근로빈곤층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현재 근로빈곤층인 사람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미래의 잠재적인 노인 빈곤층에 대한 예방적인 탈빈곤정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정책으로 자활사업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의 내용 전환 및 일자리 질의 유지·향상이 요구되며, 이들의 근로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지원정책으로 근로소득보전제도와 같은 정책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공적연금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노후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보장 정책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보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고용기간과 임금수준에 따라 급여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수의 불안정한 노동계층에게는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생각하면 보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노후 빈곤을 예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이러한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국민연금을 인구학적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수당방식 연금으로의 개혁, 범주적 공공부조 형태로 운영되는 경로연금의 확대 등과 같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홍백의(2005)의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수당방식의 연금으로 전환²¹⁾하거나, 기존의 경로연금 수준을 상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을 통해 현재 보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이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요구된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배우자의 유무가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들은 대부분 노동경험이 없기 때문에 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있으며, 따라서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이러한 제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유무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21) 캐나다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노인 빈곤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수당방식으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서도 소득이 빈곤선 이하일 경우 공공부조로 소득을 보충하는 캐나다의 1층 공적연금제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순미. 1998.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관리학회지』. 36(10): 179-196.
- 구인회·손병돈. 2005.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 1990년대 후반기의 변화 추이와 변화 요인”. 『한국노년학』. 25(4): 35-52.
- 구인회. 2005. “빈곤의 동태적 분석: 빈곤 지속기관과 그 결정요인”.
- 권문일. 1997. “노인의 경제적 복지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12: 191-223.
- 서진교. 2001. “패널자료 분석방법”. 『농촌경제』. 24(2): 93-102.
- 석재은·김용하·김태완. 2003. 『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빈곤 정책과제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인협·최성재. 1992.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경희·조애저·오영희·변재관·문현상.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1999. “노인의 경제상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9: 7-29.
- 정순희·김현정. 2001. “노인 가계의 의료비 지출에 관한 연구 - 비노인, 예비노인, 노인가계간 비교분석”. 『노인복지연구』. 12: 129-151.
- 최선화. 1999.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노인의 빈곤원인”. 『한국가족복지학』. 3: 1-25.
- 최옥금. 2005. “근로빈곤층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이동에 관한 연구: 임금일 자리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5(1): 1-42.
- 최현수·류연규. 2003. “우리나라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 최희경. 2005. “빈곤여성노인의 생애와 빈곤 형성 분석”. 『노인복지연구』. 27: 147-174.
- 한국노동연구원. 1998. 『한국노동패널 User Guide』. 한국노동연구원.
- 홍경준. 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187-210.
- 홍백희. 2005.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4): 275-290.
- McGarry K., and Robert F. Schoeni 2005. "Widow Poverty and Out-of-Pocket Medical Expenditures near the End of Life." *Journals of Gerontology*. 60:s160-s168
- McLaughlin D. K and Leif Jensen. 1994. Poverty Dynamics among U.S. Elders: Implications of Occupation, Gender and Residence. *paper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1994 Meetings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 _____. 2000. "Work History and US Elders' Transitions into Poverty." *The Gerontologist* 40(4): 469-479.
- Rupp K, Alexander Strand, and Paul S. Davies. 2003. "Poverty among Elderly women: Assessing SSI Options to Strengthen Social Security Reform." *Journal of Gerontology* 58B(6):s359-s368.
- Stata Press. 2003. *STATA Cross-Sectional Time-Series reference Manual Release 8*.
- Schiller R. B. 2003. *The Economics of Poverty and Discrimination*. Prentice Hall.
- Schulz James H. 2001. *The Economics of Aging*. Auburn House.

Factors Influencing Poverty of the Elderly : Utilizing the Panel Data Model

Choi, Ok-Geum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factors influencing the poverty of the elderly in Korea. In spite the fact that poverty of the elderly is more serious than any other demographic group, this important issue is rarely studied. Using the 7-year accumulated data from the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Study), I combined the work history of the elders,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residence to estimate pooled data analysis of the elderly after reaching age 55 and who are also only living by themselves(only the eld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first of all,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wealth, residence and work history are shown to be significant predictors for the poverty of elderly. Second, the results show that factors influencing the poverty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elder'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example, age and marital status is a more important predictor in female than in male, and wealth and health status is a more important predictor in elders who do not have a spouse than in elders who do.

Such results suggest that the policy of the poverty of the elderly which is only focused on elder's characteristic is limited. Therefore we can suggest that a policy which workable people can earn decent income and saving wealth for their elderly in job is needed. Especially, policies on the 'Working Poor' and reconstruct the current public pension system is very much needed.

Key words: poverty of the elderl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overty of the elderly, pooled data model, work history

[논문접수일 2006. 7. 18. 게재확정일 2006. 9. 20.]